

축적되는 몸짓, 흠어지는 울림

이문정(미술평론가, 연구소 리포에틱 대표)

—아니야! 내가 외친다. / 난 굴복하지 않는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이미 벌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파기할 수 있다. 나는 ‘무(Néant)’라는 단어를 붙잡고, 반대로 뒤집는다. 태어나기(Né en).¹⁾

보드랍고 포근하다. 따뜻하고 아늑하지만,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손끝이 아리는 감각이 스며든다. 익숙해진 통증. 반복 아닌 반복. 형상과 형상이 연결되고 이어진다. 감각과 감각이 만나고 헤어진다. 제자리에 고정된다. 마침표 없이 흐트러진다. 구멍-흔적이 생긴다. 이내 채워진다. 틈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물기 위해 생기는 상처. 근원은 무엇인지. 시작과 끝은 어디쯤인지. 목 안에서 시작해 온몸에 퍼지는 울림. 다가오는 흐릿한 멜랑콜리. 이내 번지는 심미적 생명력. 세상 일부의 수련거림을 벗어나는 고요한 안정. 김은정의 작업이 주는 인상, 감흥, 그리고 상념이다.

초기작인 <Alabaster Chamber>(2010), <Stairs to Green Canvas>(2011), <Urah>(2014)에서부터 <Oloyga>(2023), <Ethereal Breath>(2024)에 이르기까지, 작품 대부분에서 김은정은 천과 바느질을 이용해 왔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둥근 형태들 역시 조금씩 변용되어 등장하고 있다. 최근작이자 ‘Wall Sculpture’ 시리즈인 <Maluma>(2025)와 <Soloya>(2025)는 천으로 불록하게 만든 구-세포를 털실로 감싼 뒤 바탕천에 고정한 작품으로 바탕도, 형상도 울이 풀어진 것처럼 열린 모습이어서 세포 분열이나 진화를 앞둔 것 같다. 오랜 기간의 바느질로 완성된 두 작품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주변의 공간을 머금은 한 쌍의 작품, 한 몸처럼 존재한다. 작가는 “촉각적으로 포근한 세포들이” “공간 속에서 따뜻한 외침이자 메아리처럼 느껴지길” 기대했다.²⁾

<Maluma>와 <Soloya>를 비롯한 김은정의 전 작품은 촉각을 극대화하는데, 감각은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근원적인 통로이다. 특히 촉각은 감각하기 위해 거리가 필요한 시각과 다르다. 인간은 언어를 습득하기 이전부터 감각으로 세상을 느낀다. 그중 온몸에 존재하는 촉각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 순간 경험된다. 어떤 감각보다 육체적이다. 작가는 천을 둥글리고, 폭신한 털실을 만지고, 바느질하며 작품에 촉각-감각을 축적한다. 시간과 시간, 손길과 손길 역시 켜켜이 쌓인다. 그렇게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조각이 완성되었다.

작가는 자기 몸이 가진 “고유한 운동과 감수성”을 통해 예술을 만들어낸다. 구체적, 직접적으로 몸을 재현하거나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김은정의 작품에는 육체성이 고조되어 있다. 창조적인 상상력은 몸을 통해, 즉 정신적이면서도 육체적인 역학의 작동을 통해 실재하는 작품으로 만들어진다. 예술적 관념은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 몸 없이 창작은 불가능하다. 머릿속의 상상은 행위-노동에 의해, 손의 놀림에 의해 태어난다. 정신과 몸은 분리가 아닌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술은 정신-내면과 이어지는 것만큼이나 감각과도 관계하고 둘 다를 동요시킨다.³⁾ 그래서인지, 작가는 작품의 제목을 정할 때도 몸의 작용을 중요시했다.

1) 엘렌 식수, 『아야이! 문학의 비명』, 이혜인(역), 위크룸 프레스, 2022, p. 25.

2) 김은정, 작가 노트, 2025.

‘Maluma(말루마)’와 ‘Soloya(소로야)’는 “입안에서 부드럽고 둥글게 굴러 나오듯 울리는 음성을 직접 만들어본 것”이다. 그다음 태양, 사랑의 의미가 적혀졌다.⁴⁾

작가만의 단어이다. 입술-몸이 닫히고, 열리고, 소리를 불러낸다. 생각이 스며든다. 여운이 남는다. 잔잔하게 동그랗게 퍼져 나가는 울림이다. 편안하고 자연스럽지만, 일상적인 언어는 아니다. 통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는 작품을 새로운 맥락-관계에 놓이게 한다. 작가는 작품 앞에서 표현하기에 가까운 언어를 꿈꾼다. 그렇게 김은정은 표현하는 주체가 된다. 일상에서 생각을 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언어, 소통의 과정에서 쏟아지는 규범적 단어들을 비껴난 단어는 사회적 체계와 규범이 한정하는 영역을 벗어난다. 이미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던 순간을 앞지른다. 확장된다. 그렇게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작품의 시간이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시작할 때부터 머릿속을 맴돌던 글귀를 적어본다. 글이 어떻게 전개되든 적으려 했다. “당신에게 태양이 있기를 / 그리고 비도, 비가 필요하다면.”⁵⁾

3) 샹탈 자케, 『몸: 하나이고 여럿인 세계에 관하여』, 정지은, 김종갑(역), 그린비, 2022, pp. 342-343, pp. 351-352.

4) 김은정, 작가 노트, 2025.

5) 페르난두 페소아, 『오직 사랑만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이준혁(엮고 옮김), 도서출판 고유명사, 2024, p. 68

“모든 것은 결국 사랑에 대한 것이었다”

안소연
미술비평가

나는 한번도 직접 본 적 없는 그의 작업 <Malah>(2013)에 대한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리다가, 그것이 내 몸에 닿는 감각은 어떠할지 그에게 말하면서, 나의 몸을 감싼 어떤 “내부로서의 장소”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평평하고 불투명한, 이를테면 경계 짓는 벽들이 만들어내는 내부 공간이 아니라,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색채의 겹침이 술한 벽과 모서리의 경계를 지움으로써 일련의 몸(들)을 감싼 장소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내부로서 존재하면서, 짙은 남색의 천[물질]들을 손으로 밀어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이 공간은, 투명한 (색채의) 막들이 겹치고 포개어지면서 흐릿한, 점진적으로 그 내부에 놓일 신체의 표면에 닿는, 일종의 네거티브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한다. 사방을 둘러싼 (색채의) 시각적 유희와 피부에 파고드는 혹은 (반대로) 나의 피부가 파고드는 촉각적 감각은, 말하자면, 창문 유리창 안으로 들어온 빛과 그 표면에 쌓인 먼지 얼룩들을 집요하게 바라보면서, 몇 개의 손가락으로 신체 꼭대기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천천히, 지속적으로, 휘감는 원인 모를 행위처럼, 시공간의 어긋남 속에서, 그러한 불일치를 견뎌내는 쾌락과 맞닿아 있다.

의미를 규정할 수 없는 단어, “Malah”는, 그것을 음성으로 내뿜는 입의 모양이다. 의미와 소리라는 기호의 실체를 너머, 입 모양, 시각적인 형상으로 (다만) 존재하기를 열망한다. 아무것도, 아무런 의미도 규정하거나 지시하지 않으면서, 언어로 존재하는, 저 신체의 (잠재적인) 형상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호명하려는, 그의 상상이다. <Malah>는, <Shashah>(2024)가 된다. 그 불일치는, 두 개의 언어를, 서로 같지 않은 이 두 개의 단어를, 투명한 색채의 막들이 겹친 장소에 포개어 놓은, 어떤 신체(의 감각)에서 비롯됐다.

<Ethereal Breath(Shashah)>(2024)는, 그 장소의 또 다른 이름이다. 마치 그것은, 스스로 어떤 형상들을 품고 있는 하나의 기원, 즉 네거티브의 표면을 기억하고 있는,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기원의 장소로서) 동굴처럼, 주형의 장소다. 그것은 선명한 윤곽의 형상을 주조하는 장소가 아닌, 색채와 소리(의 감각)과 움직임, 그러한 불일치의 형상들을 숨죽여 드러낸다. 집과 같은 건축도 아닌, 어떤 형상들을 떠받칠 받침대나 벽도 아닌, 수수께끼 같은 장소를 만들어, 그는 입의의 형상들을 그 내부로부터 출현시킨다. 기억, 은폐, 예언, 기대, 소망...

오래 전, 반투명한 흰색 천들로 임시 처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았던 <Mollis(몽글)>(2013)은 사뭇 신성한 장소의 분위기를 가졌다. 바닥으로부터 (경계 없는) 벽을 타고 “몽글몽글” 번지듯이 붙어 있는 작은 덩어리들은,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으면서, 그 장소와 그 안에 들어선 몸들을 매개하며, (모체의 장소처럼) 어떤 기억 혹은 어떤 예언을 상상하게 한다.

흰색 반투명한 임시 처소의 형상을 기억해내려는, <Eleleu>(2023)는 “내부로서의 장소”에서 분리된 어떤 신체(의 파편) 같다. 새것과 헌것의 개념이 지워진, 부드럽고 연약하고 길게 늘어

져 있는, 그저 임의의 물질 상태로 존재하려는 것 같은, 이 재료들은, 지속적인 결합과 분리를 반복하면서, 어떤 형상에 다가간다. 수 천 번, 수 만 번, 바늘로 찢리고, 바늘 끝에 연결해 놓은 색색의 실들로 다시 메워지면서, 파열과 봉합을 지속한 끝에, 그 표면에 얼룩과 상흔과 주름을 켜켜이 쌓아둔 채로,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않고, 무언가를, 무언가의 움직임과 고통과 희열과 따뜻함을 기억하(려)는, 형상 그 자체로 존재하려는 속내를 보여준다.

나는 그에게 “사랑의 행위”에 대해 말했다. 그는, 재현도, 규정도 불가능한, 돌봄과 어루만짐으로 충만한, 한 몸이기를 열망하는, 분리된 채 마주한, 사랑의 대상, 상실의 대상, 그것과의 거리, 장소, 그 파편적인 실체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지워지고, 태어났다 소멸하는, 그 수수께끼를 매만진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 손에 쥐어준 종이 한 장에는, “모든 것은 결국 사랑에 대한 것이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시처럼 배열된 글자들이 놓여 있었다.